

#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누가 넘을까?

## 내달 25일 전당대회 나설 후보 3명으로 제한...후보군 관심 예비 경선 중앙위원회서 결정...민심보다 당심 향배 가를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25일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제한하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컷오프하기로 했다. 예비 경선은 이달말이나 내달초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심보다는 당심이 향배를 가를 공산이 크다.

일단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쥐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가 분선형 1순위로 꼽힌다. 단 대표 선수를 두고는 내부 교동정리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친문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월 중 하나인 전해철 의원,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호중 의원 등도 자전·타전 거론된다.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교동정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해철·최재성·김진표 의원은 각각 만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관측에 힘을 보탤다. 최재성 의원은 전 의원과 회동을 공개하면서 "둘 다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해철·최재성·김진표 의원 모두 본인 중심 교동정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선(先)출마 후(後)통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성향상 청와대가 차기 민주당 당권과 관련해 뚜렷한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친문 성향 의원은 "출마를 어

떻게 막느냐"며 "예산에서 후보 경쟁력을 따져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박범계 의원은 '친문 단일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원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친노 좌파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출마도 관건이다. 이 전 총리는 일부 친노그룹의 출마 요청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출마가 현실화되면 선거 구도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전해철·최재성·김진표 등 친문 후보들도 이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진문제에서는 김두관·송영길·실훈·이인영 의원 등이 불발 준비를 하고 있다. '원조 친노'인 김두관 의원은 지방자치 전문가라는 점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의원은 호남 출신 당 대표 후보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넓고 개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실훈 의원은 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여론 지지도가 높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는 2기 개각 쪽에 달려있다. 단 김 장관의 사표 수리는 문 대통령의 당대표 등관 승인으로 해석될 공산이 커 2기 개각 대상에서 김 장관이 제외될지 주목된다.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김 장관이 불출마한다는 전제 하에 이 전 총리와 친문 후보, 비문계 후보가 각각 1명씩 분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점쳤다.

한편, 당대표 후보 구도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군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 따르면 안민석·표창원·박주민·유은혜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은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데 관례"라며 "당대표 후보군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중진 의원 상당수가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조배숙 "민주당 인위적 몸집불리기 안돼...개혁연대·협치 재고할 것"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근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인위적인 몸집불리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 연대나 협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의원 영입 시도를 계속한다면 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나 민주당과의 협치를 재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용호 의원 등 3명의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상당한 교감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인위적 몸집불리기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11석의 의석을 추가한데다 개혁입법연대에 협조할 의석수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인위적인 의석 추가시도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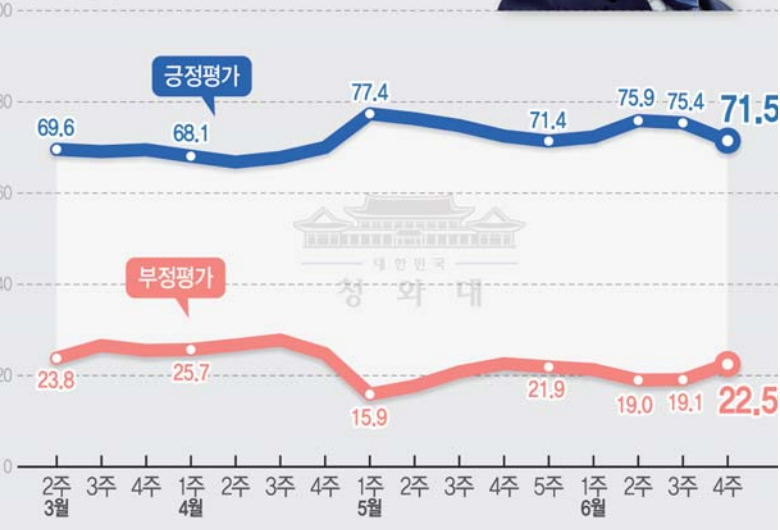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2주 연속 하락...3.9%p 내린 71.5%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월25~29일, 전국 성인 2,502명/4.8%의 응답률  
표집오차 ±2.0%p(95%신뢰수준)/의뢰기관:CBS

주간 집계 (단위: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6월4주차 주간 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8%)에 따르면 전

체 응답자 가운데 71.5%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22.5%(매우 잘못 11.9%, 잘못하는 편 10.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9%로 집계됐다.

지난 주 0.9%p 소폭 하락하며 2주 연속 상승세가 멈췄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이번 주에도 3.9%p 빠지면서 뚜렷한 하락곡선을 그렸다.

6·12 북미 정상회담과 이어진 6·13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어졌던 2주 연속 상승세의 분위기가 한풀 꺾여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는 고(故)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추서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이 시작된 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과 규제혁신점검회의 연기 소식이 더해지며 하락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과도한 일정과 피로 누적 사실이 알려진 뒤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고 '북한

도로 현대화 사업' 등 남북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것이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과 호남, 30대와 20대,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11.0%p 떨어진 65.8%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5.1%p↓·71.0%), 광주·전라(4.2%p↓·83.3%) 순으로 지지율이 빠지면서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5.8%p 떨어진 65.2%를 기록,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지지정당별로는 6.0%p 빠진 자유한국당 지지층(18.3%)에서 크게 떨어졌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5%p 큰 낙폭으로 하락해 49.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3월1주차 이후 4개월 만이다.

한국당 17.9%, 정의당 9.4%, 바른미래당 6.2%, 민주평화당 2.3%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당 안상수 "9월 전당대회 어려워"

### "내년 1~2월로 갈 것"

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2일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9월 전당대회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정기국회 끝나고 1~2월에 하는 것이 어떠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말 전에 정기국회를 하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개최할) 할 수 없는 일이다. 8월 말 전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내년 1~2월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공천은 사실상 2020년이니까 앞으로 20여 개월 남은 상황에서 공천을 운용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며 "다만 이번



에 혁신 비대위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게 될 텐데 혁명적 수준의 공천 룰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들이 공천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혁신 비대위에) 참여했다가 당 지도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공천할 때 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그런 정신이나 룰이 연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